



이번 일본 스포레크 2009 에 파견된 한국선수단은 역대 최대 규모. 97 년부터 매년 동일한 규모의 선수단이 상호 초청·방문형식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첫 교류 당시 8 종목 106 명의 선수단으로 시작한 이래 매년 종목과 인원이 늘어날만큼 활성화되고 있다. 미야자키현은 한국선수단을 위해 한국어 안내책자를 만들어 배포했고. 경기장마다 한국어로 안내표시판을 달았으며, 각 종목별로 환영회를 갖는 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개막식에서의 열렬한 환영도 인상적이었다.

今回のスポレク 2009 に参加した韓国選手団は歴代最大規模。97 年から毎年招待・訪問の形で続いている。初交流の当時 8 種目 106 人の選手団で始めた以来、毎年種目と人員が増加している。宮崎県は韓国選手団の為に、韓国語版案内パンフレットを製作・配布、韓国語案内表示板と種目別の歓迎会を用意する等おもてなしをした。開幕式の時の熱い歓迎も印象的だった。

(韓国「スポーツソウル」の新聞記事より)